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에 대한 사례 연구*

서혁** · 박지윤***

< 차례 >

- I. 머리말
- II.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학업 실태
- III. 다문화 문식성 교육의 목표
- IV.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
- 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전 지구적으로 정보화를 중심으로 한 자본과 인력의 이동으로

* 이 글은 서혁(2006, 2007, 2008), 박지윤·서혁(2009) 등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에서의 다문화 가정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이 현저하게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가정은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의 가정으로 유형화되며, 주로 첫째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또는 외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거나, 외국에서 성장한 후 한국에 이민한 지 5년 이상이 되는 중학생들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 여성은 2007년에는 10만 4749명으로, 5년 전인 2002년 3만 4710명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법무부, 2007). 2006년 12월 기준 통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6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5만 1982명, 59.6%), 베트남인(1만 4892명, 17.1%), 일본인(6273명, 7.2%), 필리핀인(4041명, 4.6%)이 주류를 이룬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의 주요 대상 학습자들을 가급적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 학생들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 제1저자(교신저자),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교수

*** 제2저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국제화의 추세가 그 어느 때 보다 가속화 되고 있다. Banks(2009a, 2009b)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국제이민은 약 3%에 달하는 2억 명에 이른다. 이는 1990년도에 약 1억 2천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 약 20년 동안에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몇몇 나라의 경우 다문화 구성원의 비율이 20~30%에 이를 정도로 큰 수치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특정 주의 경우 향후 20~30년 내에 다문화 대학생들의 구성비가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아직 이들 국가들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긴 하나,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다문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0년에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249,765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총인구 49,219,537명 대비 2.54%에 이르는 작지 않은 수치이다. 아직은 세계 평균 3%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나, 순혈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 사회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화 시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권순화, 2009 : 58~62).

다문화 현상에 대한 논의와 관심의 초점은 이른바 “다문화 가정”에 모아지고 있다. 국내 다문화 가정은 크게 ‘국제결혼 이주 여성, 이주노동자, 새터민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가정’으로 구분된다(서혁, 2007). 특히 이 중에서도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의해 새롭게 탄생된 가정에 대한 관심, 해당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국어교육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윤·서혁(2009)에 따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외 다문화 논의와 국내의 다문화 논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즉, Banks(2008, 2009a, 2009b)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적 다문화 현상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다문화적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에 있으며, 특히 인종과 성(gender), 종교 등의 경계를 초월하여 문화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정체성의 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Banks는 다문화 교육의 5가지 차원으로 “내용통합(교사설명에서), 지식구성과정(학습의 과정), 편견감소(인종적 태도), 공평한 교수법(학습양식), 학교문화와 조직(상호작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

에서 ‘편견의 감소’는 중요한 교육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한국 상황에서는 “편견감소”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다문화 교육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다문화 현상은 각 민족의 고유 언어를 제1언어(L1)로 하고 있으며, 가정 내의 문화 자체가 특정 민족 문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반면에 한국적 다문화 가정의 특징은 소수자인 이주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제1언어(L1), 제2언어(L2)와 그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어와 해당 자녀들의 (한)국어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주 여성들의 L1과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은 아직 여러 여건 상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의 학습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변인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연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인정하되, 소수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개략적으로나마 다문화 가정 부모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찰과 면담, 읽기 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에 대해 논의한 후, 다문화 가정 중학생 1학년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중심으로 부모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사례 연구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양적이고 표면적인 분석에 머문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에 대한 국어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박지윤·서혁(2009)의 연구에 대한 수정 보완의 의미를 갖는다.

II.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학업 실태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2009년 현재 초등학교생의 비율이 약 85%로서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나, 중학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문화 가정 학습자에 대한 국어교육 연구는 초등학교생에 집중되어 왔으며, 중등학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한국 거주 기간이 5~10년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생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에 의하면 한국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읽기와 쓰기를 비롯한 교과 학습 능력에서는 한국 주류문화의 학생들보다 상당한 차이로 부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윤희원, 2007, 2009. 권순희, 2009 등).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모친인 이주여성들의 경우 읽기, 쓰기 능력과 학습자들에 대한 학업 지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요컨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녀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모(母)의 한국 언어문화 이해 부족이 그 자녀들의 국어 학습과 전 교과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희원(2009)에서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부진의 정도가 심하며, 독해와 어휘력, 쓰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구어보다는 문어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소속감의 결핍과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정체성 혼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초 지식의 부족에 따른 논리적 사고 및 추상화 능력의 부족하여 수학이나 과학의 문장제 문항의 해결에 어려움을 보이고, 의성어와 의태어 등의 감각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직관력에도 일반 학생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다문화 가정 초등학교생들의

학업 성적은 중위권(45.6%), 하위권(35.3%), 최하위권(5.1%) 등 중하위권에 해당한다는 반응이 86%로서 상위권(14.0%)에 해당한다는 반응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어 과목의 어려움에 기인(52.2%)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들 역시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언어(33%), 자녀교육(28%), 한국인의 편견(16%), 풍습(13%), 경제(9%), 음식(1%)을 들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교 공부 지도(41%), 비싼 학원비(23%), 한국어 교육(17%), 예절·문화교육(10%), 교우 관계(7%), 기타(2%)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어휘와 문법, 이해력 부족이 확인된다(김선정·강진숙, 2009 : 34~37). 이는 비록 경북 지역에 제한된 수치이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된다.¹⁾

김선정·강진숙(2009)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 학습자와 일반 가정 학습자의 어휘력 비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의 어휘력이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 주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1학년의 경우 다문화 가정 학습자와 일반 가정 학습자의 어휘력 점수가 3점 척도를 기준으로 각각 2.1과 2.7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2학년의 경우에는 각각 2.3과 2.6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1학년의 경우

1) 전은주(2009)에서는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정 학습자와 일반 가정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두 집단의 사교성, 교과목 선호도, 국어사용 능력에 대한 자기인식, 국어 교과와 영역에 대한 인식(난이도, 흥미도 등), 국어 교과서의 내용 난이도 등에서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다문화 학습자가 일반 학습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의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작품 이해 등의 능력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효능감에 대한 판단의 결과들은 성취 결과에도 비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전은주(2009)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 학습자가 일반 학습자와 비교했을 때 국어과 교수·학습에서 동등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훈장님, 서당, 자갈’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강하게 갖는 어휘에서 약 1점 척도 차이로 높은 격차를 보여준다. 반면에 ‘말씀하다, 지키다’ 등은 2.7과 2.8로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는 어휘나 역사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는 어휘의 경우에는 다문화 학습자들이 취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휘 학습의 많은 부분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이에 대한 학습 지원이 충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맥락이 개입되어 있는 어휘들을 매우 어려워한다(박영민, 2009 : 164)”는 언급은 국어과 교육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은 일반 가정 학습자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어휘력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둘째, 어휘력 차이의 기저에는, 전술한 어휘력 차이의 예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크게 관여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는 가정에서의 실질적인 학습 안내자 역할을 하는 모(母)의 사회문화적 배경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그 자녀의 어휘력은 해당 학습자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향상되나, 해당 부모와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지식과 경험이 일반학생의 사회문화적 지식과 경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Stern(1983)의 “험프티 덤프티 효과(Humpty Dumpty effect)”라는 용어에 착안하여 “험프티-덤프티 격차(Humpty Dumpty gap)”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험프티-덤프티는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달걀 병정으로서 서구 문화에는 널리 알려져 있다. 험프티-덤프티 효과는, 마치 깨어진 달걀을 원형으로 복원시킬 수 없는 것처럼, 총체적인 언어능력으로 전이되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용어이다.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험프티-덤프티라는 용어 자체가

어려서부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읽고 자라면서 동요로 부르며 자란 서구인과 달리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낯설다는 문화적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는 마치 서구인들이 “갑돌이, 갑순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느 기간, 특히 유아 시절의 문화적 경험의 공백은 성인이 되어도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

이는 다문화 가정 학습자에 대한 교육이 언어적 문식성과 함께 사회문화적 문식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 모친에 대한 사회문화적 문식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Ⅲ. 다문화 문식성 교육의 목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는 다문화 교육의 기본 목표로 다문화 문식성(multicultural literacy)의 신장으로 보고자 한다. 다문화 문식성이란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기본 능력이라고 간단히 정의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문화 시대의 문식성이란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해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Banks, 1996), 지식의 가정을 드러내는 능력, 다양한 민족 및 문화적 시각에서 지식을 검토하고,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과 능력으로 구성된다(박윤경, 2007). 이를 위해서는 유창하고도 창의적인 언어능력,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표현 능력이 핵심적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학습자들이 건강한 인격과 자아실현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²⁾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2) 서혁(2007)에서는 다문화 문식성 교육과 관련하여 그 핵심이 학습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확장이며, 이는 크게 개인과 집단의 두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즉, 개인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확장은 물론 특정 집단이 또 다른 집단의 맥락을 확장 수용 확장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집단의 다문화적 문식성의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급별 구성비를 볼 때 20009년 현재 초등학교 약 85%, 중학교 약 11%, 고등학교 약 4%를 차지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직 대다수이나, 이는 2006년도의 초 87.1%, 중 9.5%, 고 3.4%에 비추어 볼 때 점진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2000년대 들어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시작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로 점차 진학하게 되면서 학교급별 구성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최영환(2009 : 46)에서는 다문화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과 단일 문화 가정 학생을 모두 고려하면서 한국 사회와 교육에 적응하게 하는 기본 목표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확대 목표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권순희(2009)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핵심으로 “영어몰입교육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중 언어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중언어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이문화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이해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육아(育兒)는 엄마의 언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자녀와 문화적 공감대도 높여 줄 뿐 아니라, 자녀의 지능과 학습 능력 발달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언어를 이어받는 계승어(heritage language)는 한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통해 2010년부터 한국어와 부모 출신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혜진, 2009 : 113). 다문화 문식성의 개념에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중언어 능력도 고려하여, 학습자와 해당 가정에서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V.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그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연구의 목적과 여건 상 대규모적인 통계적, 양적 연구보다는 구체적인 대상 학생들을 선별하여 진단, 지도, 피드백하는 질적 접근 방법을 취했다. 본고에서는 모친의 언어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읽기 능력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연구를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다문화 가정 센터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섭외하였으며, 2009년 2월 12일부터 2009년 5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의 기간 동안 다문화가정 중학교 1학년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박지윤·서혁(2009)에 대한 보완적 의미를 갖는다.

1. 읽기 이해 과정에 미치는 요인

읽기는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즉, 여러 정보 자원들을 연결하여 통합·조정하는 복잡한 지적 기능이다. 이러한 읽기를 이해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언어, 사회·문화, 심리의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이삼형 외, 2000 : 183~192). 즉, 읽기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자를 해독하고 그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이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갖고 있는 일정한 맥락 속에서 텍스트를 파악하고, 자기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읽기는 텍스트와 독자와의 상호 작용적인 읽기 활동임을 알 수 있다.

Pearson & Johnson(1978 : 58)은 독해력을 역동적인 작용으로 보고, 글에 표현된 정보와 독자의 기존 지식에서 나온 정보 사이의 관계, 즉, 텍스트, 지식, 독자의 세 측면을 참고하여 독해력의 하위기능을 텍스트에 명시된 이해, 텍스트에 함축된 이해, 기존 지식을 적용한 이해, 문장 간 문단 간의 관계 이해의 네 기능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Pearson과 Johnson의 분류를 고려하여 읽기 능력을 사실적 읽기 능력, 추론적 읽기 능력, 비판적 읽기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적 읽기 능력은 문장 혹은 단락에서 텍스트 명시적인 내용 확인 및 파악 능력을 말한다. 추론적 읽기 능력은 이란 글의 사실적 내용, 독자의 배경 지식,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하여 글 자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실을 이끌어 내어 궁극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정신적 과정이다. 또한 추론적 읽기는 글에 주어진 각각의 문장들을 실마리로 하여 머릿속에 글의 내용을 전체적인 하나의 생각으로 종합하여 구성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비판적 읽기란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하여 텍스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자신의 사고와 반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전술한 Pearson과 Johnson의 사고 능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배경지식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스키마와 관련된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스키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1932년 Barlett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핵심적 내용은 독자의 경험 구조가 단락의 이해나 기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스키마는 친숙한 상황, 행동 또는 일련의 사건 등과 같이 독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지식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어 학습에 있어서 스키마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학습자의 문화 속에서 쌓여진 경험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입력 정보를 수월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독자의 스키마는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을 주된 기반으로 한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맥락을 상황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사회문화적 맥락은 사회문화적 지식과 가치관, 태도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맥락은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적,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뜻한다. 따라서 맥락은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의미 구성을 할 때,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언어적, 상황적, 사회·문화적 지식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이며 역사적 존재인 학습자가 구체적인 이념적 지향과 상호텍스트성을 지니고 있는 글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다(이삼형 외, 2000 : 191). 사회·문화적 맥락은 특정한 개인들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맥락이다. 독해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을 벗어나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의미 구성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형성한 학습자의 가치관, 세계관 등이 반영된다.

이주섭(2001 : 59~79)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같은 사회,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체계, 신념, 태도, 행위 패턴, 문화적 규칙 등의 추상적 구성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독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지식체계에 기반한 스키마에 크게 의존하면서 글을 읽게 된다.

2.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능력

1)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³⁾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의 관련성에 대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되, 가장 대표적인 사례연구의 방법을 시도하였다. 선별된 사례의 개별적이거나 특정한 면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여러 면들까지도 사례 연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 중학교 1학년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만 및 몽골, 필리핀, 한국계 중국(조선족) 등과 같이 다양한 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대상 선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중등 교육의 시작은 중학교 1학년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 교육인 초등학교에서 중등 교육의 시발점인 중학교로 올라가는 과도기적인 학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선정한 것이다. 대상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다문화 가정 학습자의 특성

이름	거주 지역	출생 지역	재학 학교	국적	교우와의 관계	학교 성적	장래 희망
A	서울시 S구 D동	한국	한성화교 소학교	이중국적 (대만, 한국)	원만함	상위권	대만 유학 후, 한국 회사 취직
B	서울시 Y구 G동	한국	B여중	한국 국적	원만함	중위권	체육과 관련된 직업
C	서울시 Y구 M동	한국	Y중학교	한국국적	원만함	상위권	모르겠다고 대답

3) 이는 서혁·박지윤(2009)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름	거주 지역	출생 지역	재학 학교	국적	교우와의 관계	학교 성적	장래 희망
D	서울시 E구 G동	한국	E중학교	이중국적 (대만, 한국)	원만함	상위권	외교관
E	경기도 G시 Y동	몽골	J중학교	몽골 국적	원만함	하위권	모르겠다고 대답
F	인천시 B시 N동	한국	I중학교	한국 국적	혼혈인이라 놀림을 받음	상위권	모르겠다고 대답
G	서울시 S구 D동	중국 연길	J여중	국적 없음	협소함	중위권	외교관
H	경기도 G시 B동	한국	G중학교	한국 국적	원만함	중위권	모르겠다고 대답

본 연구에서 선정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에서 출생을 하였거나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이민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이나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대만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2000년 이후 신고를 하여 이중 국적을 취득한 학생이 두 학생이 있었다. 그러나 만 18세가 되면 국적을 하나 포기할 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반면에 G 학생은 국적이 없는데,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현재까지도 국적이 없는 상태이다.

A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A 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이 대만 출신이기 때문에 이는 자녀에게 유용할 것이라 판단을 하여 일부러 한성화교 소학교에 입학시켰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대부분 교우와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혼혈인이라고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성적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나타나며 장래 희망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많았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

었고, 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어머니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만, 몽골, 필리핀, 중국의 출신으로 대만, 몽골,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G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와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 국적을 포기하여 현재는 국적이 없는 상태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의 인터뷰와 간단한 검사를 통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말하기와 듣기의 소통능력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읽기와 쓰기의 문어소통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와 함께 출신국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E와 G 학생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한국어로 이민을 할 때에는 한국에 더 많은 삶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한국에서의 삶은 그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 대상 다문화 가정 학습자 어머니의 특성

학생 이름	어머니 국적	어머니의 거주기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사용언어	어머니의 교육 정도	어머니의 직업	한국에 대한 태도
A	대만	12년 6개월	의사소통, 쓰기, 읽기 잘함	이중언어 (한국어, 대만어)	미국 학사	공부방 운영	긍정적
B	대만	13년	의사소통과 읽기는 잘 하나, 쓰기 능력 부족	이중언어 (한국어, 대만어)	일본 학사	관광 회사원	긍정적
C	대만	13년	모든 방면에서 잘함	이중언어 (한국어, 대만어)	대만 학사, 한국 석박사	박사 과정생	긍정적
D	대만	13년	의사소통과 읽기는 잘하 나, 쓰기 능 력 부족	이중언어 (한국어, 대만어)	일본 학사	디자인 회사원	긍정적

학생 이름	어머니 국적	어머니의 거주기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사용언어	어머니의 교육 정도	어머니의 직업	한국에 대한 태도
E	몽골	6년	의사소통 힘들	이중언어 (한국어, 몽골어)	박히길 꺼려함	식당 운영	부정적
F	대만	13년	의사소통과 읽기는 잘하나, 쓰기 능력 부족	이중언어 (한국어, 대만어)	일본 학사	중국어 학원 강사 했으나 지금은 그만둠	긍정적
G	국적 없음	5년 6개월	의사소통 잘하나, 쓰기 및 독해 능력 부족	이중언어 (한국어, 중국어)	고졸	수선집 운영	부정적
H	필리핀	13년	의사소통과 읽기는 잘하나, 쓰기 능력 부족	이중언어 (한국어, 필리핀어)	필리핀 학사	영어 강사	긍정적

다문화가정 학생의 아버지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H 학생의 아버지는 조사 시점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와 함께 어머니의 출신국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중 언어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A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한국식 교육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A 학생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어머니의 교육 지침이 자신이 대만인이라는 것을 자녀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만어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만식 교육 방식에서 생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조사 대상 다문화가정 학생 아버지의 특성과 교육방식

학생이름	아버지 직업	가정의 경제력	생활 방식	교육 방식
A	D 커피딜 차장	중상	이중 언어 환경 ⁴⁾	대만식 교육 방법지향 ⁵⁾
B	계약회사원	중상	이중 언어 환경	한국식 교육방식 ⁶⁾
C	무역회사원	중상	이중 언어 환경	한국식 교육방식
D	출판사 회사원	중상	이중 언어 환경	한국식 교육방식

학생이름	아버지 직업	가정의 경제력	생활 방식	교육 방식
E	어머니와 함께 식당 운영	중하	확인되지 않음	한국식 교육방식
F	D 전기회사 이사	중상	이중 언어 환경	한국식 교육방식
G	전기 수리원	중하	이중 언어 환경	한국식 교육방식
H	현재 무직 (과거 전기 수리원)	중하	이중 언어 환경	한국식 교육방식

3.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능력 분석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읽기의 주요 하위 기능을 어휘 능력, 문장 연결 능력, 중심 생각 찾기 능력, 스키마를 활용하여 글을 읽는 능력으로 제한하여 읽기 능력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읽기 능력은 비록 읽기의 전체적 양상이나 요인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읽기 능력의 핵심적 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평가 도구는 학습자들의 학년에 해당하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과 국어 교과서들을 고려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작한 전국 성취도 검사 문항들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새롭게 변형 제작한 것이다.

- 4) 여기에서 이중 언어는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언어에 노출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중 언어 환경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들이 국제결혼을 함으로써 한 가족 내에 두 가지 이상의 언어 환경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생과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언어에 노출된 동시적 이중 언어 환경으로 정의한다.
- 5)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A 학생의 생활 방식은 한국식 교육방식이 아닌 대만의 가정 환경으로 집안이 꾸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대만식 요리를 자주 하거나, 대만어를 주로 사용하고 한성화교 소학교로 진학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 6) 한국식 교육방식은 연구자마다 논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한국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일반 한국 학생들의 가정내 생활 방식을 한국식 교육방식이라 정의한다.

1) 어휘 능력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어휘 능력을 분석한 것이다. 이 때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어휘에서 사회·문화적 스키마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용 표현, 동음이의어, 고유어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뉴스 진행자 :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인을 태우고 우주에 다녀온 우주선의 내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주선 내부는 공상 과학 영화에서와는 달리 아주 비좁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우주선에는 세 명의 우주인이 탔었는데,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 좁은 공간에 서로 바짝 붙어 앉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영희 : 우주선을 타면 활동하기 ㉠편안하구나.

철수 : 우주선의 내부는 어른 키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네.

미숙 : 내부가 비좁아서 우주인들이 ㉢바짝 붙어 앉아 비행을 해야 한대.

철수 :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본 우주선 내부는 무척 넓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비좁구나.

미숙 : 우주복까지 입은 우주인은 우주선 내부에서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했겠네.

1. 위 글은 뉴스를 들은 후 학생들이 대화한 것입니다. 대화의 흐름으로 볼 때 ㉠~㉤ 중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

② ㉡

③ ㉢

④ ㉣

⑤ ㉤

위의 문항에서 A 학생은 정답이 ①번임에도 불구하고 ④번을 표시하였다. 이는 일반 한국 학생이 본 문항에서 95%의 정답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이다. 심층 면담 결과 ‘비좁다’의 ‘비’를 ‘아닐 비(非)’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넓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학생의 어머니는 대만 출신으로 학생은 한국어와 대만어를 자유자재로 사

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대조하기 위하여 일반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도 파악을 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 한 학교의 한 반을 랜덤 샘플링으로 선정하여 총 22명의 학생에게 동일한 문항의 사전 검사를 풀게 하였다.

용할 수 있다. ‘비좁다’의 ‘비’가 ‘아닐 비(非)’로 생각을 하기에 ‘넓다’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모두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과잉일반화와 단어 오개념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습자의 특정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이 종종 독해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⁸⁾

위의 문항은 ‘배’의 동음이의어를 묻는 문항인데, 일반 한국 학생 22명 중 21명이 정답을 맞춘 95%의 정답률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8명 중 단 2명만이 정답을 맞힐 정도로 본 문항을 매우 어려워하였다. 특히 ‘배가 등에 붙어 다닌다’는 한국의 관용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매우 많았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학생은 단순히 어휘량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들어있는 관용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2. ㉠~㉤ 중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는 하나는?

아들아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먹으렴. 배란다에 있는 ㉡배가 좀 부른 향이리에 내가 좋아하는 김치가 있단다. 후식으로 시원한 ㉢배도 챙겨 먹어라. 매일 ㉣배가 등에 붙어 다닌다고 하니 안쓰럽구나.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지.

많이 먹고 힘내.

-엄마가

① ㉠ ② ㉡ ③ ㉢ ④ ㉣ ⑤ ㉤

또한 다음 문항은 외래어와 고유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으로, 일반 학생들은 대체로 쉽게 ‘댐’을 찾아냈으나,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포슬포슬’을 정답으로 표시하였다. 윤희원(2009)에서 다문

8) 물론 이는 좀 더 다양한 사례 조사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렇듯, 국립국어원(2002)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어 어휘의 빈도는 11182로서, 이 정도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야 하는 어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화 가정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의성어, 의태어 등의 감각적 표현과 직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확인해 주는 예에 속한다.

3. 다른 나라 말에서 빌려 와서 우리말처럼 쓰는 말은?

나는 물이에요.
 줄줄 쭈쭈 출출 약기 같은 새 ㉠소리도 흉내내며 산 속 바위틈을 지나 ㉡개울에 이르면, 어디서 왔는지 그 곳에는 ㉢얼굴이 푸르스름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다가 숨차면 ㉣땀에 갠히 햇볕에 ㉤포슬포슬 등을 말리기도 하고, 그래도 심심하면 폭포처럼 뛰어내려 하이말강게 부서지며 깔깔댔어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문장 연결하기

어휘와 함께 문장의 의미나 문장 간의 연결 관계 파악은 소단위 독해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독해력의 기본이 되는 미시적 처리 과정에 속한다. 특히 두 문장 이상의 연결 관계에서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을 높여 주기 위해 다양한 담화 표지가 빈번하게 활용된다. 독자가 텍스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제나 문장, 더 나아가서는 단락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부분들의 정보 중요도를 판단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접속어 등 담화 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G 학생의 반응 예〉

(1) 쉬는 시간에 장난을 치다가 교복이 못에 걸려 찢어졌다. (고해서) 나는 혜진이에게 바늘과 실을 빌려 대충 찢어진 교복을 꿰맸다. (고민대)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2층 교무실에 갔다.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와 있었다. (고려나) 나는 그 아이가 내 찢어진 교복 치마를 볼까 봐 걱정이 되어서 뛰기 시작했다. (고우하) 교무실 앞 복도에서 화분에 걸려 우당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말았다. (고려나) 다행히 그 아이는 내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2) 수현이는 오늘 아파서 학교에 오지 않았다. (고해서) 우리들은 수현이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고민대) 학교 앞 오락실을 지날 때, 수정이가 “여기에서 잠깐 놀다 가자.”고 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다. (고우하) 아프다고 학교에 오지 않은 수현이가 거기에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대체로 접속어의 기능과 용법을 이해하고 있으나, 앞에 제시된 G학생의 (2)번 반응에서와 같이 ‘왜냐하면~때문이다’와 같은 기본적인 담화 표지와 호응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심층면접 결과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가정에서 그러한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 중심 내용 파악

텍스트의 중심내용(또는 중심 생각, main idea)은 핵심어, 화제문, 요약, 주제문 등 여러 층위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사실적 독해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비교적 긴 한 문장의 텍스트를 제시하고 중심내용을 파악하도록 했다. 사실적 이해 능력은 추론적, 비판적 이해 능력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능숙한 독자는 미숙한 독자에 비해 중심 내용 파악에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중심내용 파악은 독자의 읽기 목적이나 관심 내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사실적 이해 차원의 텍스트 중심 내용 파악에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어구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화제(topic)+평언(評言, comment)”의 형태의 명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서혁, 1996). 이때 독자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부가적인 정보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

중심내용 파악을 위해 제시된 다음 글은 대략 “[{나전철기의} 무역왕이 소설 <홍길동전>을 {여느 때와 달리} 흥미롭게 읽고 있다.”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 안의 정보들은 위의 “화제+평언”의 가장 기본적인 거시명제(n 차 명제)를 좀 더 상세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거시 명제의 구조는 “[$n\{n-1(n-2)\}$]차 명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위로 갈수록 상세화된 명제 형태를 가리킨다.

다음에 제시된 세 학생의 중심내용 파악 과제에 반응의 예는 모두 핵심어를 포함한 부가적 거시 명제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차이점을 보여준다. 즉, D학생의 경우 대체로 전술한 “ $n-2$ ”차 명제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무역왕”)가 없다는 점

에서 부족함을 보여준다. F학생의 경우 “(키가 크고 날씬하고 늙고 눈이 푼)”이라는 부가적 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도()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어느 때와 달리 흥미롭게”라는 필자의 특별한 서술 의도가 엿보이는 정보를 놓치고 있다. G학생의 경우 핵심어는 모두 포함하고 “화제+평언”의 형태로 잘 제시하고 있으나, “의자에 앉아서”라는 매우 일반적인 독서 상황을 나타내는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을 보여준다.

(1) D 학생의 반응 예

문제 1. 아래의 예문에서 중요한 것을 가려 뽑아보자.

【예문 1】

(가) 키가 후리후리 크고, 몸이 날씬하며, 늙어서 얼굴이 새하얗고, 코가 유난히 높으며, 눈이 큰 나전 칠기의 무역왕인 그 사람은, 왕골로 엮어 만든 구석의 낡은 의자에, 뒤로 젖혀 기대어 앉아서, <홍길동전>이란 초록 표지로 예쁘게 장정한 두툼한 소설책을, 돋보기를 끼고, 어느 때와는 달리 간간히 미소 지으며 령 흥미롭게 읽고 있다.

(나전 칠기의 무역왕인 그 사람은 어느 때와 달리 홍길동전을 흥미롭게 읽고 있다.)

3. 주제문 찾기

(1) 주제문의 뜻 : 글에서의 중심 생각

(2) 주제문의 위치

① 주제문이 문단의 첫 문장에 있는 경우

② 주제문이 문단의 끝 문장에 있는 경우

→ 그 사람은 어느 때와 달리 홍길동전을 흥미롭게 읽고 있다.

(2) F 학생의 반응 예

문제 1. 아래의 예문에서 중요한 것을 가려 뽑아보자.

【예문 1】

(가) 키가 후리후리 크고, 몸이 날씬하며, 늙어서 얼굴이 새하얗고, 코가 유난히 높으며, 눈이 큰 나전 칠기의 무역왕인 그 사람은, 왕골로 엮어 만든 구석의 낡은 의자에, 뒤로 젖혀 기대어 앉아서, <홍길동전>이란 초록 표지로 예쁘게 장정한 두툼한 소설책을, 돋보기를 끼고, 어느 때와는 달리 간간히 미소 지으며 령 흥미롭게 읽고 있다.

(나전 칠기의 무역왕인 그 사람은 낡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홍길동전>이라는 소설 책을 돋보기를 끼고 어느 때와는 달리 흥미롭게 읽고 있다.)

3. 주제문 찾기

(1) 주제문의 뜻 : 글에서의 중심 생각

⇒ 무역왕은 의자에 앉아서 <홍길동전>을 읽고 있다.

(3) G 학생의 반응 예

문제 1. 아래의 예문에서 중요한 것을 가려 뽑아보자.

【예문 1】

(가) 키가 후리후리 크고, 몸이 날씬하며, 늙어서 얼굴이 새하얗고, 코가 유난히 높으며, 눈이 큰 나전 칠기위(무역왕인 그 사람은, 왕골로 엮어 만든 구식의 낡은 의자에, 뒤로 젖혀 기대어 앉아서, <홍길동전>이란 초록 표지로 예쁘게 장식한 두툼한 소설책을, 돋보기를 끼고, 어느 때와는 달리 간간이 미소 지으며 흥미롭게 읽고 있다.

(가까로 날씬하고 늙고 눈이 큰 무역왕이 <홍길동전>을 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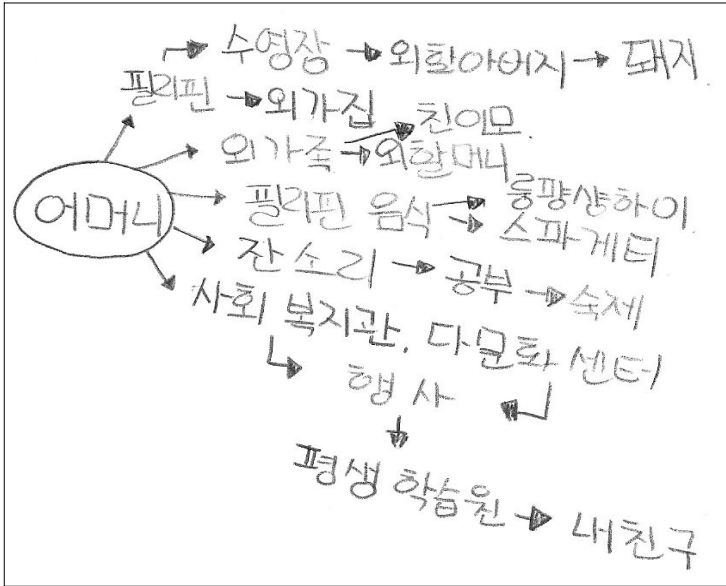
4)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과 글 읽기

배경지식이란 어떤 대상이나 개념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식 체계에서 알고 있던 지식을 말한다. 사람들은 상응하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동화되지만, 상응하는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조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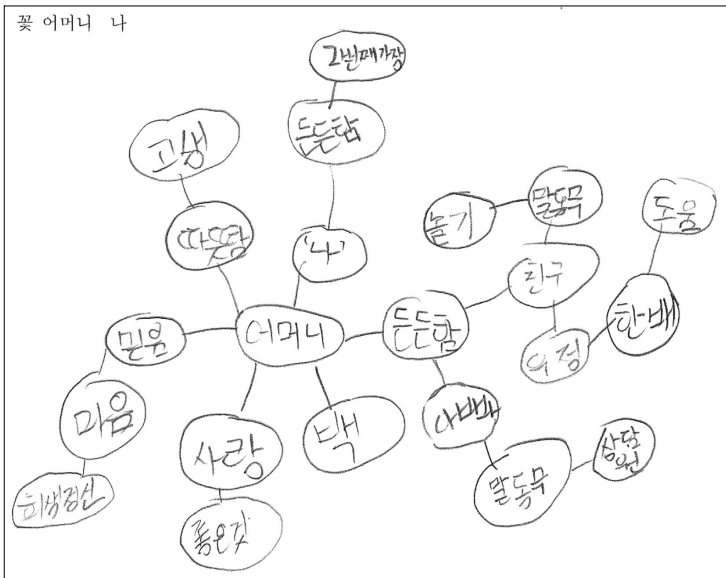
다음은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이 중학교 국어 1-1 ‘2단원. 어머니의 우산’을 학습하면서 ‘어머니’라는 화제로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를 마인드맵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의 출신국과 관련되는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역명이나 음식명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H 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라는 중심 소재에 대해서 ‘필리핀’, ‘외가족’, ‘룽광상하이’, ‘필리핀 음식’, ‘다문화센터’, ‘평생학습원’ 등과 같이 어머니의 주요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을 연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의 영향도 받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지윤·서혁, 2009). 반면에 F 학생은 어머니의 출신국에 대한 연상이 없었으며, 어머니는 ‘친구 같다’, ‘든든함’, ‘말동무’와 같이 연상하고 있었다. 심층 면접 결과 학교에서 혼혈인으로 놀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출신국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H 학생의 실제의 '어머니'에 대한 마인드맵



(2) F 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마인드맵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글을 읽을 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스키마가 활용되는지를 제시한 것이다. 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등에 대해서는 글의 옆 부분에 접착식 메모지에 적어 두도록 하였다. 그런 후, 의문 나는 점은 “?” 표시를 하였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 아래에 “■”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글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의문점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데에서 유용하다.

다음은 D 학생이 배경지식(스키마)을 활용하며 글을 읽는 것을 보인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텍스트를 제시하고 텍스트를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 모르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접착 메모지에 쓴 다음 텍스트의 옆에 붙이도록 하였다. 주어진 텍스트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5단원의 ‘설화 속의 호랑이’의 내용을 일부 변형,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설화 속의 호랑이’를 선택한 이유는 ‘호랑이’는 한국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글을 읽을 때 자신의 배경지식(스키마)을 활용하여 글을 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국 문화에 관한 배경지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시문에서 ‘산군’이라는 것은 ‘호랑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산군’을 ‘산을 지키는 군대’로 의미 파악을 1차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한국 문화에서의 ‘호랑이’와 관련된 한국 설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서혁·박지윤, 2009).

코강이는 지구 사람을 해쳤는데 왜 산처럼 생긴 걸까?

※ 아래 글을 읽고 다음의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해봅시다.

산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
 = 한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부터 등장한다

산을 지키는 군대일까?
 인대의 기록이나 최근에 조사된 민속 자료에서는 산신(山神)은
 '산손님', '산신령', '산군(山君)', '산돌이', '산지킴이' 등으
 도 하였다. 이처럼 신성시된 호랑이가 한국의 설화나 민화 속
 ☀️
 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설화나 민화 속에서 우리는 무서운 호
 랑이, 익살스러운 호랑이, 정이 첩첩 넘치는 호랑이, 신이(神異)한 호랑
 이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민족의 삶의 모습이 설화 속의 호랑
 이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코강이는 왜 신성하게 여
 호랑이는 가족을 해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많았던 거였을까? 산 속에서 가
 그래서 설화 중에는 사람이나 가족이 호랑이한테 해를 당하
 가 많이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서는 사나운 호
 머니를 잡아먹고,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를 잡
 가 동아줄이 끊어져 죽는다.

이렇게 사나운 호랑이가 벌을 받는 이야기에는 악(惡)을 물리치고 선

왜 코강이는 옛날 이야기
 데 자주 나오는
 그만큼 지구 만나서 이
 기 때문일까?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제한적이거나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자신
 의 스키마를 활용하여 글을 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다문
 화가정 자녀는 글을 읽을 때 어머니의 출신 국가의 문화, 언어 변인에 영
 향을 받고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자녀의 읽기 능력에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글을 읽는 방법을 지
 도할 때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어떠한 배경지식이 있는지를 교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시문을 읽게 하고 제시문의 중
 심 소재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교사
 에게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배경지식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자
 녀에게는 읽기를 위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어떠한지, 그러한 사
 회·문화적 배경은 어떠한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서혁·박지윤, 2009).

V. 맺음말

이 연구는 다문화 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 특히 어머니의 주요 사회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읽기 능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질적연구이다. 다문화가정의 주요 구성원(어머니와 그 자녀)에 대한 관찰, 분석, 심층 면담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어머니는 한국어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자녀의 교육에 관여를 하고 싶지만,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자녀의 교육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생은 읽기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스키마)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어휘에 있어서 어휘의 양이 부족한 것도 있으나, 고유어, 동음이의어, 관용 표현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관용 표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었다. 한 단락 수준의 중심내용 파악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화제+평언” 형태의 거시명제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생략 가능한 세부 정보들이 추가되고, 오히려 필수적인 구체적 정보는 생략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술한 “험프티-덤프티 겹”에서와 같이 사회문화적 문식성의 기저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적 지식은 모어 화자의 수준에 동일하게 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읽기 지도 시에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다문화 문식성 교육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언어적 문식성과 사회문화적 문식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문식성의 신장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학습자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건강한 인격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급증하는 다문화시대 속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그들에 맞는 교육을 통해 읽

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사례연구이긴 하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읽기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였고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변인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국어교육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어휘력, 독해력, 읽기 능력과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중심으로 한 국어 이해 표현 능력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 본 논문은 2009. 10. 30. 투고되었으며, 2009. 11. 7. 심사가 시작되어 2009. 11.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희(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pp.67-115.
- 김민화(2007),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이동학회지』, 제29권 제2호(2008년 4월), pp.155~179, 한국이동학회.
- 김선정·강진숙(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고찰”, 『이중언어학』 제40호, 이중언어학회, pp.30-54.
- 김혜정(2002),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비판적 읽기’ 이론 정립을 위한 학제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수자(2002), 『읽기 지도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영민(2009), “다문화 학습자와 중등학교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pp.151-173.
- 박윤경(2007), “지식 구성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독서연구』 vol. 18, 한국독서학회, pp.97- 126.
- 박지윤·서혁(2009),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읽기 능력에 관한 사례 연구,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국어교육의 실상과 대안,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09년 학술 발표회 자료집, pp.17-38.
- 보건복지부(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정책 방안』, 미래인력연구원.
- 서 혁(1996), 담화의 구조와 주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서 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제12호(2007년 봄), pp.57-92,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서 혁(2008),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초등국어교육연구』 제17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 오소정·김영태·김영란(2009), “서울 및 경기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연구”, 『특수교육』 제8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pp.23-49.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파주: 동녘 출판사.
- 윤희원(2007),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교육』 제49권 제4호 통권 189호(2007년 겨울), pp.17~22,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 윤희원(2009), “다문화 사회와 국어교육-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 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pp.5-25.
-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서울 : 소명출판사.
- 이혜진(2009),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문,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p.113.
- 전은주(2009),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에 관한 비교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pp.117-150.
- 전재완(2009), 다문화 가정 아동 국어 교육 지도 사례 : 초등 1, 2학년울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국어교육의 실상과 대안,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09년 학술 발표회 자료집, pp.49-60.
- 조항록(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방안-문화 상호주의의 지향-”, 『새국어생활』 제18권 1호, 국립국어원.
-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제2호(2008년 6월), pp.105-134, 한국교육사회학회.
- 최영환(2009),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pp.27-5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2007),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 방안 연구1』,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Banks, J. A.(1987), 『사회과 교수법과 교재 연구』, 최병모 역,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서울 : 교육과학사.
- Banks, J.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E. 모경환 외 공역(2009), 『다문화교육 입문(수정판)』, 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 Banks, J. A.(2009a) (Ed.),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 Banks, J. A.(2009b),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Nations Around the World*, 『세계화, 다문화 사회 그리고 교육』, 2009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 Stern, H. H.(1983),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심영택, 위호정, 김봉순 역(1995), 『언어교수의 기본 개념』, 하우.
- Pearson & Johnson(1978), *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초록〉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에 대한 사례 연구

서혁 · 박지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읽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사례연구와 관련된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주요 구성원(어머니와 그 자녀)에 대한 관찰, 분석, 심층 면담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어머니는 한국어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자녀의 교육에 관여를 하고 싶지만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자녀의 교육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지도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일정 부분 그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어휘에 있어서 어휘의 양이 부족한 것도 있으나, 고유어, 동음이의어, 관용 표현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관용 표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었다. 한 단락 수준의 중심내용 파악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화제+평언” 형태의 거시명제 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생략 가능한 세부 정보들이 추가되고, 오히려 필수적인 구체적 정보는 생략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급증하는 다문화시대 속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그들에 맞는 교육을 통해 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록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사례연구이긴 하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읽기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였고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변인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국어교육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어휘력, 독해력, 읽기 능력과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중심으로 한 국어 이해 표현 능력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전술한 “험프티-덤프티 잭”에서와 같이 사회문화적 문식성의 기저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적 지식은 모어 화자의 수준에 동일하게 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 지도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다문화 문식성 교육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다문화 가정 학생, 사회문화적 배경, 읽기 능력, 국어교육, 스키마, 험프티-덤프티 잭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Reading Abilities and Sociocultural Background of Multi-cultural Background Students

Suh, Hyuk · Park, Ji-yoon

This study is an qualitative case study which tried to find out the relations between reading abilities and socio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regarding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y. We had an interview with 8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their parents. Most of the parents had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in Korean, so they had a great limitation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s studying. The students had some difficulties in reading comprehension due to the lack of socio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in particular Korean vocabulary, proper words, homonym and idioms. The students generally accomplished to write a summary in the form of "Topic and Comments", but sometimes they had mistakes such as omitting main points or adding unnecessary detail informations. We observed some student's lack of socio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during their reading texts, we named it as "Humpty-Dumpty Gap" in this paper. The gap is an obvious obstacle in reading comprehension. So when teachers try to teach reading for the student, they need a careful intention regarding socio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Key words] Multi-cultural background student, Socio-cultural background, Reading ability, Korean language education, schema, Humpty-Dumpty Gap